

1995년 『조선예술』 연극 읽기

1995년 연극계는 작년 김일성 사망의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 혁명연극 <소원>을 창조했으며, 이것이 5대 연극창조의 첫 돌파구를 열은 것이라고 한다. 금년에는 1994년 10월 26일 김정일이 내린 지시에 따라 연극 <승냥이>를 혁명연극 <성황당>식으로 개작하여 올리겠다고 한다. 또한 연극계는 김일성 사후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새 세대들에게 높은 계급적 자각, 미제국주의에 대한 환상 없애는 교양사업에 이바지하겠다는 결의는 이를 반영한다. 그런데 <승냥이>공연에 대해서는 후속 글을 발견할 수 없다. 1996년와 이후의 조선예술을 살펴보아야 공연여부가 확실해질 것이다.

김일성의 추모, 김정일의 권위 강화

199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코너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지도한 일지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김일성 사후, 김일성에 대한 추모와 김정일 중심으로 북한 사회를 단합 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일 것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1-2년은 이 코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1947년부터 1953년까지 김정일이 문학예술부문을 지도한 내용을 통해서 그가 시와 노래를 작곡하기도,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연극 《패전장군의 말로》에 출연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선전선동부로 옮겨가서 문학예술을 지도할 때, 직접 연기를 지도하기도, 장면을 쓰고, 노래 가사를 짓기도 했는데, 그가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이 어릴 때 음악과 연극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명에 대한 언급

일반적으로 모든 단평이 주체사상을 어떻게 잘 구현했는가에 치우쳤다면, 1995년 단평은 다소 다른 각도이기에 주목된다. 2월 리성호는 <장면전환과 정서적 감흥-단막극 ‘믿음’을 보고>에서 단막극 《믿음》에서 장면전환을 위해 연출가가 조명과 음향수단을 특색 있게 이용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갱안의 고성기에 대한 국부조명, 방송원 순영이의 목소리에 대한 음향을 정확히 개방함으로써 관중의 감각이 오직 무대에 집중하여 주인공의 심리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한 것을 잘된 장면처리”로 보고 있다. 또한 “국부 조명속에 장치물이 단번에 나타나게 설치함으로써 관중이 장치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감흥을 깨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극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게” 했음을 상찬한다. 핀 조명을 썼다는 것인데, 장치물을 세우고 핀을 쓴 것인지, 핀을 쓰고 장치물을 단번에 설치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핀을 이용하여 관객의 집중을 유도하고, 좁고 답답한 ‘갱’이라는 장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며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다. 공연에서 사상의 전달뿐 아니라 시청각성의 중요성 역시 인식하는 북한 연극계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전체적으로 1995년에 연극계는 새로운 작품창작보다 연극관련 강좌와 지난날의 회고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연의 실제보다 이론으로 지면을 채운 것인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부터 밀어닥친 북한의 경제난일 것이다.

김정수